

유키 구라모토의 서정적인 선율... 진심이 닿다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1에서 광주일보 주최로 펼쳐진 콘서트 '진심'에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감성적인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 20주년 기념 콘서트 성황
애절한 멜로디 1200여 객석 감동
풍성한 무대 박수 갈채로 이어져

‘한국이 사랑하는,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이 광주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지난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1에서 열린 유키 구라모토의 콘서트 '진심'은 대한 공연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콘서트로 'Romance', 'Lake Louise' 등 드라마, 영화, CF 등에 삽입되며 지금까지 국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 곡들이 연주돼 큰 박수를 받았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이날 공연은 1200여석의 객석이 빈틈없이 채워져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유키는 2시간 동안 서정적인 감성이 담긴 연주와 무대 매너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건반을 타고 흐르는 특유의 애절하고 낭만적인 멜로디를 감상하며 관객들은 충만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연주를 하기 전 한국말 곡 설명과 함께 "잘 들어주세요"라며 허리를 숙이는 등 관객을 배려한 무대 매너는 편안한 관람 분위기를 만들었다.

'판타지', '자연' 등의 주제로 2-3곡씩 묶어 연주한 이날 공연에선 'Sonnet Of Woods', 'Day-dream' 등의 곡을 개성적인 연주로 선보였으며 극적인 분위기로 편곡한 'Meditation'에 이어 영화 '달콤한 인생' 삽입곡으로 잘 알려진 'Ro-

mance' 등 익숙한 곡이 흐르자 감동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2부는 다양한 악기와 어우러진 협연무대로 꾸며져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 협연 무대는 다른 악기가 돋보일 수 있게 잔잔한 반주를 이어가다가도 순간 순간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유키의 다채로운 편곡이 빛났으며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피아노 독주회의 단점을 카르텔의 풍성한 음색과 화음이 어우러진 무대로 변화를 줘 눈길을 끌었다.

유키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과 호흡을 맞춘 'Warm Affection'을 시작으로 첼리스트 이윤하, 플루티스트 김일지, 클라리네티스트 강신일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 풍성한 감성을 전했다. 뜻밖의 싱그러운이 느껴지는 경쾌한 느낌의 'Forest' 등은 5명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했다.

피날레는 뮤지컬 '폭풍의 언덕' 삽입곡 'The Only Love'이 장식했다. 악기들이 돌아가며 각자의 사랑을 말하는 듯한 구성과 폭발적인 열정을 담은 피아노 연주가 결집된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앙코르를 연호했고 출연진들은 'In a Beautiful Season'으로 화답했다.

영화 '달콤한 인생'과 '러브레터', '모래시계' 등의 삽입곡으로 널리 알려진 유키 구라모토는 지난 1999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첫 내한공연을 가진 후 매년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진행했으며, 지난 2007년에는 한국 진출 10주년 기념 음반 'Romance Collection: 10th Anniversary'를 발매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 64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창사67주년



2019
6.4 화 - 6.7 금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새싹그리기축제

개요 대 상 : 전국 미취학 어린이
작품공모 시 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결과발표 : 2019년 6월 20일(목)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주 제 : 제한없음

참가 참가비 : 7,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 5,000원)
※단체접수문의 : 062-220-0541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우 61482)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서툰지만 진심을 다했던 시간들’ 이정록 대표작 한눈에

포토에세이 '수상한 풍경' 출간

신비로운 느낌의 '생명나무'와 '나비' 시리즈는 사진작가 이정록(49)의 대표 작품이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몽환적인 기분에 빠져들고, 촬영 과정이 궁금해진다. 더불어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진다.

이정록 작가가 사진 에세이집 '수상한 풍경-재현에서 표현으로' (눈빛)를 펴냈다. "주류에서 벗어나 줄곧 '오솔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어왔다"고 말하는 '작업하는 이정록'의 모습이 오롯이 담긴 책이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지금은 "작가로서 살아남는 일조차 혼신의 힘을 다해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된" 그에게 책을 쓰라 말한 후배가 있었다. 홀로 개척하며 작업해온 선배의 모습을 지켜봐온 후배는 "당신이 정말 이어서가 아니라, 절대 자유에 내던져져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절박한 누군가에게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다"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가 '부끄러움을 꼭꼭 눌러가며 서툰지만 진심을 다했던 지난 시간들'을 기록한 책에는 광주 변두리에서 태어나 겪은 유년의 추억부터 첫 카메라 펜탁스 MX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기억을 거쳐 다양한 작품을 촬영하기까지의 과정과 대표작이 담겨 있다.

20년전 첫 개인전이었던 '남녘땅'전을 비롯해 자연이 지닌 압도적인 힘과 숭고함을 표출한 '신화적



풍경' 시리즈, 신도시 건설을 위해 파헤쳐진 대지가 만약 '소리'를 낸다면 어떤 걸까 궁금해하며 대지의 음성을 시각화 하기 위해 빛으로 기호를 만든 'Decoding Scape' 등 각각의 작품에 얽힌 이야기가 흥미롭다. 또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숨겨진 깊고 근원적인 무언가에 몰두해온 이 작가가 선보이는 '생명나무'와 '나비' 시리즈도 인상적이다.

특히 5·18 현장인 광주 상무대 옛터505 보안부대와 국군병원, 제주도 4·3현장, 여순사건 현장 등 역사적 현장에서 자신의 상상력으로 재현해낸 이미지를 영글에 담은 '개인적 성소' 시리즈는 "사적 경험 이 아닌 타인의 경험을, 공적인 역사의 한 부분을 품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지 생각하면 아득해지면서도 계속하고 싶다"는 작가의 다짐이 담긴 작품이기도 하다.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한 뒤 로체스터 공대 영상대학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한 그는 광주비엔날레 등에 참여했으며 광주신세계미술대상(2006) 수립사진문화상(2015) 등을 수상했다. 이 작가는 14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서울 스페이스 22갤러리에서 책 출간 기념 전시 '수상한 풍경'전을 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Nabi 30'

표문화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아시아문화원(원장이기표·이하 문화원)은 5월부터 광주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지난해 호응을 얻은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올해도 광주 북구 일곡초교 등 총 21개교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다양한 옷을 탐색하고

나만의 소품을 만들어 보는 '마이 리틀 소품', 아시아의 여러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림자극으로 표현해보는 '신기한 동화', 아시아 여러 나라의 화폐에 담긴 문화를 알아보고 나만의 화폐를 만들어보는 '화폐,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이다. 특히 올해는 5학년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인 '소리상자공작소'를 신설해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 융합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